

통신요금 지원하고 경품도 평평...

증권사 "모바일 고객을 잡아라"

무선단말기 거래 늘면서 재미 투자자 겨냥 유치전

"모바일 고객을 잡아라." 증권사들이 모바일 주식투자를 하는 재미 투자자를 잡기 위해 '마케팅 전쟁' 모드로 전환했다.

현대증권은 신규고객과 가입 후 거래실적이 없던 휴면고객을 대상으로 8월말까지 모바일 주식거래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실시한다.

매매를 하면 단말기 할부금을 전액 지원한다. 월 4000만원 이상 거래하면 통신비 4만5000원도 대신 내준다.

광주지역 주요 전통시장에서도 쇼핑카트를 이용해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광주시는 12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의 하나로 남광주시장과 대인시장,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등 주요 4개 전통시장에 쇼핑카트 160대를 보급했다고 밝혔다.

전통시장에도 쇼핑카트 등장

광주시 4곳 160대 보급



12일 광주시 북구 말바우 시장에서 한 여성이 쇼핑카트를 이용해 장을 보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전통시장에 전용주차장이 확보되고 진입로가 개설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인들도 상품진열선을 지켜 고객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카트를 보급하게 됐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주요 전통시장에 전용주차장이 확보되고 진입로가 개설되는 등 시설 현대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상인들도 상품진열선을 지켜 고객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 공간을 확보함에 따라 카트를 보급하게 됐다"며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위해 올해부터 연간 100억원씩 5년간 50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여름 돼지고기

"더 잘 팔렸네"

"여름철 돼지고기, 잘 먹어야 본전"이라는 말이 옛말이 되고 있다. 여름철에 돼지고기가 더 많이 소비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12일 광주신세계 이마트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여름철(6월1일~8월11일) 돼지고기 매출 성장률을 살펴본 결과 2008년은 2.3% 증가한데 그쳤지만 2009년에는 12.3%, 올해는 43.4%나 늘었다.



光銀 수완금융센터지점 개점 송기진 행정 등 광주은행 임직원들이 12일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에 서 윤봉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등 금융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은행 수완금융센터지점 개점식 행사를 갖고 있다.

韓銀 기준금리 연 2.25% 동결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전격 인상했던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달에는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금통위는 12일 정례회의를 열어 통화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현재 연 2.25%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것은 부동산경기 침체, 가계와 기업의 빚 부담 등을 고려할 때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 부담스러운데 미국의 경기 둔화가 세계 경제와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을 좀 더 지켜보자는 판단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광주 어음부도액 크게 하락

부도기업 줄어든 탓...전남은 소폭 증가

7월 광주지역 어음부도 금액이 전 달에 비해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발표에 따르면 7월 중 광주·전남지역 어음부도 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 지역 어음부도율(금액기준)은 0.25%로 전달(0.45%)에 0.20% 포인트 하락했다.

광주는 전달 0.74%에서 0.38%로 0.36% 포인트 떨어졌고, 전남은 0.15%로 전달과 같았다. 광주의 부도금액은 52억4000만원으로 전달에 비해 53억6000만원이 줄었고, 전남은 22억5000만원으로 3억 원이 증가했다. 광주의 부도금액이 준 것은 부도업체가 준데다 부도금액이 적은 때문

으로 풀이된다. 업종별 부도금액의 경우 제조업이 21억원으로 가장 크게 줄었고, 서비스업(18억9000만원), 다음으로 건설업(11억5000만원) 순이었다. 신규 부도업체수는 6개로 전달(11개)에 비해 5개 감소했으며, 업종별로는 법인이 5개 감소했으며, 개인사업자는 전달과 같았다. 신설 법인수는 296개로 전달(279개)보다 17개 증가했고 부도 법인수에 대한 신설법인 수의 비율은 59.2배로 지난 2007년 4월(68.8배)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세계 경기 둔화 우려...증시 36P↓·환율 급등

미국과 중국 등 주요 2개국(G2)의 경기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는 우려에 국내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가 이틀째 급락했다.

721.75에 거래를 마쳤다. 가까스로 1,730선을 지켰지만 장막판 프로그램에 국내 코스피지수를 비롯한 아시아권 증시가 이틀째 급락했다.

은 남유럽 재정위기가 우려가 불거졌던 5월 이후로 처음이다. 코스닥지수도 4.16포인트(0.88%) 내리면서 470.98에 마감했다.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달러로 바꿔 나가면서 환율은 상승(원화값 하락)했다.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IPALG Hybrid Water-resistant Remodeling, featuring images of modern buildings and contact information.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전북장터' (Jeonbuk Jangdo) featuring images of food and contact information for a real estate agent.